

“경기장 4개 새로 지어 이런 완벽한 대회 치러내다니...”

세계 언론·스포츠계 U대회 찬사 쏟아내

“개회식, 광주만의 문화색 보여줘”

“의전통역요원 등 서비스 대만족”

“자원봉사자·시민 친절도 인상적”

역대 가장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광주 U대회에 대해 외신 매체와 기자,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 등 세계 언론과 스포츠계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광주 U대회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광주 U대회 미디어등록 현황을 보면 국외에서 437명(주한 외신 25개사 78명, FISU 권역매체 187개사 359명)의 기자가 미디어등록을 했다.

이들은 광주 U대회의 시작을 화려하게 알린 개회식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아스트로 아레나(Astro Arena)의 기자 사라자드 사니(26)는 “지금까지 본 개회식 중에 가장 멋있었다. 지난 카잔 유니버시아드에도 취재에 참여해 개회식을 관람했는데 그때보다 더 화려하고 다채로운 공연으로 구성됐다”며 “특히 멋진 퍼포먼스를 가장 인상 깊게 봤다”고 말했다.

중국 상하이 데일리의 취재진들은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광주 U대회 개회식은 광주만의 문화색을 유감없이 보

여주는 한편의 대서사시였다”고 표현했다. TV3 말레이시아의 Fadil moho rais(37)도 “올림픽처럼 전 세계가 하나로 뭉친 큰 축제와 같았다. 색다른 세레모니도 많이 감상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외신 기자들은 또 대회 운영 수준에 전반적으로 만족감을 나타냈다.

미국의 인기 있는 스포츠 방송국 ESPN의 본부장인 토드 마이어스는 “서비스가 아주 쉽고 편리하게 이뤄졌다”고 평한 뒤 “아타세(의전통역요원) 서비스도 좋았다. 만약 아타세 분들이 없었다면 외국인 기자들이나 선수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로 스포츠 채널 취재진도 “광주 U대회의 69개 경기장 중 오직 4개만이 새로 지어졌다는 점이 생태친화적인 동시에 경제적 대회라는 명성을 남기게 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언론인 외에도 전 세계에 모여든 대회 관계자들은 광주를 묻는 질문에 입을 모아 ‘시민의 친절함’을 극찬했다.

FISU 미디어 관계자인 안구스 토로드(45)는 “광주시민들이나 자원봉사자와 대화를 해보면 매우 친절하고 항상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차기 유니버시아드 개최지인 대만 타이베이시의 미디어 담당자 캐시 린도 “광주 U대회가 시민들의 친절함을 바탕으로 잘 진행됐다”면서 “광주 U대회는 선수, 자원봉사자, 시민이 함께 협동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인상 깊다.

이런 점은 대만에서 U대회를 개최할 때 배워야 할 점”이라고 분석했다. /특별취재단=박진표기자 lucky@



U대회 개막식 참석차 광주를 찾은 마크 리퍼트(왼쪽에서 두번째) 주한 미국대사가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한 뒤 희생자 묘역을 둘러보고 있다. <국립 5·18민주묘지 관리소 제공>

U대회 성과 담은 에릭 상트롱 FISU 사무총장의 ‘EPIC’ 사행시

Excellent games(수준높은 경기) Performance of the top(최고의 경기력)
Incredible atmosphere(관중의 열기) Congratulation Gwangju(축하합니다, 광주)

감사의 글귀와 함께 조직위에 전달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대회의 성과와 의미를 한눈에 보여주는 사행시(四行詩)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행시의 주인공은 광주 U대회를 주관하고 이끈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에릭 상트롱 사무총장. 그가 조직위에 건넨 사행시는 이번

대회에 대한 기대와 염원을 모두 담았다는 평가다.

그는 광주 U대회 조직위가 사전에 선포하고 추진했던 핵심 키워드인 ‘EPIC’을 주제로 사행시를 만들었다..

‘EPIC’은 저비용·고효율의 친환경 대회(Eco), 나눔과 배려, 연대의 정신을 담고 있는 평화(Peace)대회, 최첨단 정보와 통신기술을 접목시킨 기술(IT)대회, 남도·광주의 정을 듬뿍 담은 문화(Culture)대회로 이번 유니버시아드

의 콘셉트였다. 이런 의미에서 상트롱 총장이 이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새로 만든 사행시는 광주 U대회의 주변 여건을 고려한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상트롱 총장은 E는 수준높은 경기(Excellent games), P는 최고의 경기력(Performance of the top), I는 엄청난 관중의 열기(Incredible atmosphere), C는 축하합니다 광주(Congratulation Gwangju)의 뜻을 담았다.

상트롱 총장은 “광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글귀도 함께 써 광주 시민의 대회 성공 개최를 가슴 속 깊이 축하한다는 의미도 새겼다. 더욱이 삼행시나 사행시 문화가 익숙하지 않는 서양 사람이 선포 사행시를 이용했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특별취재단=박진표기자 lucky@

U대회 성공 뒤엔 31사단 지원 있었다

병력 2만명·헬기 200대 등 투입 개·폐회식 공연, 선수 수송 도움

육군 제 31 보병사단(사단장 권혁신 소장·사진)이 지역 민과 함께하는 향토사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역에서 열린 국제행사인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성공을 뒷받침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부대상을 구현하고 있어서다.

육군 31사단은 12일간 치러진 하계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만여명의 병력을 지원하는 한편, 헬기 200여대, 경비정과 함정 95척 등의 장비를 투입해왔다.

전 세계에서 찾는 외국 선수·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해 사복 차림의 순찰조인 편의대를 비롯, 대테러부대, 기동타격대, 헌병특임대, 화생방신속대응팀, EOD(폭발물 처리반), EHCT(위협성 폭발물 개척팀), 방공전력, 군견 등



을 투입했다. 경비 지원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개·폐회식 공연 참여, 수송·경기 지원 등 원활한 대회 운영에도 힘을 보탰다. 해외 파병국 선수단을 부대로 초청, 한국의 정을 선보여 진정한 향토사단의 역할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 U대회 경비작전사령관을 맡았던 권혁신 사단장은 “광주에서 처음 열린 국제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탰 수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묘지에 묻힌 분들 사연에 가슴 뭉클 이 분들 덕에 한국 민주국가 발돋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U대회 기간 5·18묘지 방문 뒤늦게 블로그에 소회 올려

마크 리퍼트(42·Mark Lippert)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한국이 세계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는 중심에 광주가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남겨 눈길을 끌고 있다.

리퍼트 대사는 최근 블로그 ‘리퍼트 가족의 한국 이야기’에 지난 3일 광주 방문 경험을 담은 글을 올려 “첫 일정은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송고한 가치를 지키기 목숨을 잃은 분들을 기리는 참배로 시작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리퍼트 대사는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기리는 참배의 의미를 세기 위해 국립 5·18민주묘지 방문 일정을 일체 외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방문 목적이 하계유니버시아드 개막식 참석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그는 방명록에 “한국인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희생하신 광주 시민들께 경의를 표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리퍼트 대사는 블로그에서도 “1980년 당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은 분들의 사연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다”며 “이런 용감한 분들과 다른 많은 이들의 노력 덕분에 한국이 오늘날 세계 선진 민주국가 중 하나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야말로 이런 발전의 중심에 있었다”며 “광주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열정으로 잘 알려져있는 도시”라고 전했다.

리퍼트 대사는 “5·18 민주묘지를 아들 세준이와 함께 찾았다”며 “언젠가 세준이에게 이곳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리퍼트 대사는 광주를 방문해 지난 3일 하계유니버시아드 개막식에 참석하고, 미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아메리칸 코너’에서 지역 대학생들과도 만나는 등 소통행보를 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의전

스마일 라식

라식과 라섹을 뛰어넘는 안정성과 정확성이 높은 미래형 차세대 시력교정술

신경손상이 적어 안구건조증 감소

뛰어난 회복속도 빠른 일상생활 가능

각막을 열지 않아 외부충격에 더 안전

만족스러운 결과, 1.0 이상 90% 시력유지

우수한 시력 예측, 시력예측도 가장 우수

더욱 뚜렷하고 선명한 시력교정!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로내용 스마일/라식/라섹/ICL/백내장/녹내장/망막/눈성형/노안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의필 제150204-증-68156호

시열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열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열병원.com ☎(062)368-1700